

Letter from Blacksburg

블랙스버그에서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 하신가요?

저는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5년을 버지니아텍에서 산업공학 박사과정으로 다니다가 석사로 학업을 마무리하고 그 후 Charleston, SC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정착하고, 결혼도 하여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정철의 입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이 소식지에 저의 이야기를 나눠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소식지에 실렸던 정원정 집사님의 간증을 읽고, 저에게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 블랙스버그에 살고 있지 않은 제가 이렇게 블랙스버그 소식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강한 I (introversion/내향형)의 성격이라서, 아마 저는 하는 분들은, 지인들중 가장 말이 없는 사람으로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은 사람 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블랙스버그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기억도 많지만,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황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의 신앙 배경을 짧게 소개하자면, 중학생때는 한국에서 친구가 억지로 교회에 끌고 가서 갔다가 중간에 도망 나왔던 경험이 전부 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미국에 와서 많은 이민자들처럼 가족과 함께 한인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게 되면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거의 4년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습니다. 졸업후 석사 과정을 하며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설레는 마음으로 버지니아텍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믿음의 상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 본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만 살짝 맛 본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QT 를 해보려 했지만 말씀이 쉽사리 읽히지 않았고, 기도도 잘 안되고, 주일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갔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삶과 박사과정에 뚜렷한 목표가 없었던 저에게 박사과정은 호락호락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들처럼 박사 과정을 밟아가지 못하는 저는 방황하였고, 안 그래도 I 인 저에게 사람 만나기를 피하게 되는 대인기피증의 증세도 오게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던 저는 박사과정의 중요한 시험을 치루게 되었고, 시험을 치기 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였습니다. 시험을 잘 Pass 하게 해달라고 기도 하지 않았고, 준비 한것만 잘 발표할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길이 아니라면 저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시험에 떨어졌고, 교수님 한분이 저에게 "어쩌면 이 길이 네 길이 아닐수 있으니 다른 길을 찾아보는것도 좋을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낙담이 되었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치기 전년도에 인턴을 했던 회사에서 다시 인턴 제안을 받았고, 과정을 마칠때쯤 풀타임 제의도 받아 5년간의 박사과정을 내려놓고 블랙스버그를 떠나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었습니다.

2015년 찰스턴 한인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기회가 되어 처음으로 선교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볼리비아 선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선교와 전도도 할수 있다'는 선교사님의 철학으로 성경공부에 집중이 된 선교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성경공부를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 별로 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사야 43장)과 찬양(나의 안에 거하라)을 통해 가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날 바로 가겠다고 하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가량을 세상과 단절되어 거의 하루종일 성경공부와 기도만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싫었습니다. 이 계기로 저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성경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이끌어 주셨고, 이전의 저라면 절대 할수 없었을 사역들을 순종하여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전 블랙스버그에 있을때 순장을 제안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모세와 예레미야가 말한것 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거절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 4:11a, 12)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1:9)

그렇게 내 안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컸었던 저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너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 되었고, 나와 함께 있어 할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담대히 순종 하라'고 하시며, 2017년 내향적이고 말주변이 없는 저를 속장(순장)으로 세우셔서 속회(순)모임을 인도하게 하셨고, 음악 지식도 부족하고 노래도 잘 못하는 저를 택하여 부르시어, 찬양 팀장으로 성도분들 앞에서 찬양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 하였을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직분자 교육을 통해 집사의 직분을 받고, 초청 목사님의 QT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는 법, 그리고 그것을 빠지지 않고 매일 할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어, 그 이후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4:1)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준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쓰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저의 생각을 버리고 이웃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 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누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toddler 를 가진 아버로서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앞으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욱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양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며, 그로 인해 앞으로 제 삶에 더욱 더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신앙의 단계에 계신가요? 힘든 고통 가운데 계시거나, 갈 길을 잃어 방황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뜰만 밟고 나와 또 일주일을 바쁜 일상에 쫓겨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가요? 아무 의미 없이 썩어질 이 세상것을 쫓아 분주하게 다니는것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살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 합니다.

2023년 10월
Charleston, SC 에서 정철의 드림



2023 가을 야외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가을학기 행사

8/25 : 개강예배

9/24: 야외예배

10/20: LOGOS (대학부) 찬양의 밤

목요 성경 읽기 모임: 매주 목요일 EST
21:00 (online)

블랙스버그 한인교회 유튜브 생성

@koreanbaptistchurchofblack3581

매주 주일설교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시간: 미주 동부시간 13:00

헌금/재정지원

<https://kcbcb.us/paypal-헌금>

(한국에서는 Paypal 사용이 불가합니다. 한국
에서 헌금을 하실려면 계좌 이체를 해야합니
다. 교회 계좌 정보가 필요하시면

kcbcb.treasurer@gmail.com 으로 메일 보내
주세요.)

한인 교회 Mailing address:

PO Box 10185, Blacksburg, VA 24062

미국 교회 주소:

550 N. Main Street, Blacksburg, VA 24060

기도제목

- 선교: 말씀 중심 교회 (김정환)- 은혜로 부흥
케 하소서
- 몸이 아픈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 40년간 우리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에 감사